



수능

D-9

오답 되풀이 않도록 기출문제 계속 풀어라

9일 남았다. 대학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2일 치러지면서 수험생·학부모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정도로 '역대 최대 몰수능'이 예고된 상황. 수험생들엔 실수를 줄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 일선 고교 교사들이 말하는 실수를 줄이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마무리 학습법을 들어봤다.

◇국어, 문법·화법·작문 끝까지 신경 써라=이규연 상일여고 교사는 10일 남았으니 화법·문법·작문 쪽에 조금 더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문법·화법·작문의 경우 학생들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수능이 예고됐으니 이 부분에서 실수로 한 두문제만 틀려도 치명적이다.

문학·비문학은 EBS 연계율이 높아 새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지만 문법·화법·작문의 경우 다르다. 시험 첫 부분에 나와 긴장된 상태에서 풀다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가 하면, 아는 것도 실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학, 미·적분 활용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라=박건수 광주수피아여고 교사는 도형 문제보다 미·적분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적분 활용의 경우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 분이다.

중·상위권,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전략적인 공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수학 A형을 택한 지원자라면 93점 이상을 획득, 2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놓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교사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보다

■광주 일선교사가 말하는 '막판 역전' 학습법
EBS 영단어 완벽 암기...국어 문법·작문 신경을
수학A 중위 학생, 2등급 안정적 확보 전략 필요
'쉬운 수능'...사탐·과탐이 변별력 가를 열쇠로

시험장에 가져 가면 안돼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전화 배터리 분리해 보관했다라도 본인이 갖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을 경우:1교시 전에 반드시 제출
※개인용 사프펜, 볼펜은 압수 조치되며,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별도 제공)

이런 행동 안돼요!!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위협하는 행위
-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⑦ 4교시 탐구 영역 때 두 과목 문제지를 한꺼번에 내놓았다거나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시험지 함께 풀지 말도록 신경쓸 것.
-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이미 나온 유형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실전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틀린 문제가 안 나올 때까지 모의 고사 기출문제 등을 계속 풀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영어, 실전 감각 유지해라=광주대 동고 오창욱 교사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

여보다 끝까지 자신감 있게 지문 대하는 자세가 '쉬운 수능'에서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비법이라고 언급했다.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어휘 등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게 이 시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탐구, 문제 잘못 해석하는 일 없도록=최근 '쉬운 수능' 기조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탐구 영역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 한국사의 경우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과목이다.

실용어고 서점권 교사는 요약정리·오답 노트를 활용하면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의 경우 실수 하다가 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도표, 지도 등을 정리하면서 실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탐구, 실수를 줄여라=현재 수능 기조에서 과학 한 문제 영향력은 국·영·수 등 쉽게 나온 과목 2~3 문제 영향력보다 더 컸다는 점, 실수는 시험 망친 것보다 다음에 개념 적용을 해야 하고 자료 해석을 묻는 게 문제의 60~80%를 차지한다. 박봉기 살레시오여고 교사의 주문이다.

과학탐구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이해로, 이후 탐구·실험이다. 그 다음에 개념 적용을 해야 하고 자료 해석을 묻는 게 문제의 60~80%를 차지한다. 박봉기 살레시오여고 교사는 이런 점을 파악해 개념을 적용해보고 자료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드론으로 취업 날개 단다

토지정보관리과 3D 지도제작에 큰 도움

드론(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토지정보과의 경우 지적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중요한 수업 도구로 자리잡았다.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는 시대적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습 과목에 2대의 드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코스를 설정하고 좌표 값에 따라 비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으로 3D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일이 현장에서 기계로 측량하지 않아도 경계를 확정하거나 경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학과 학생들의 설명이다.

첨단 장비 도입 등 시대적 추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학과 측은 광주 유일의 지



적 분야 학과로, 지난 2013년 80%, 지난해 74.4% 등 취업률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적직 공무원·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지리정보원 등으로 취업한 졸업생들도 500명이 넘는 데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인 3자격 취득' 등 차별화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신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조권영씨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동신대 학생들이 각종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신대의 경우 지난 30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진원 주최로 코엑스에서 연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와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공학계열 학과의 시제품 제작과정처럼 문제해결력과 실무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에서 170종의 작품이 출품됐다.

동신대 불사팀(이탁호·김원주·김광호·곽중원·강보원)은 '이동식 소방 방수포'라는 작품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초기 진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노약자도 쉽게 사

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동신대 조권영(건축학과 4년)씨는 제출한 '링크사업과 함께 한 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현장실습 수기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씨의 수기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낯선 현장에 적응하는 과정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로 거듭나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조신대 '공기UP'팀의 '공동주택의 욕실 환기설비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대 '타기온' 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피 경로 알림시스템'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문대로는 서영대 '튜닝엑스'팀이 주유 중 출발사고와 혼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차화설비공공교의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3.4대 1을 기록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자동차화설비공공교의 입학 원서 접수 결과, 80명 모집에 광주 지역에서 238명, 광주 이외 지역에서 35명 등 총 273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대는 2016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60명 모집에 227명이 지원하여 3.78 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도 경쟁률은 2.25대 1로 파악됐다.

▲조선대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는 국비 지원 FTA전문 석사과정생 2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 활용 실무전문가, 컨설턴트 등을 양성하는 게 목표로, 조선대는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의 주관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원서 접수는 11월 16일까지다.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 1층 단독 주택, 2012년 준공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5500만원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수기동,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16층
- 29평, 주거겸 사무실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일시불 매매가-5700만원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상담문의
H.010-3605-5000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보성, 임야 지분

- 보성군 북내면 계산리 산81-1 외 5
- 13만평중 지분 26000평
- 인도접하고 완경사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1억(조정가)

금호동,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4면유리
- 용 3억 6천만원,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 - 5억 6천만원

경매투자자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